

미혼모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wed Mothers

경희대학교
강사 김 만 지

KyungHee University
Lecturer : Kim, Man Jee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프로그램의 구성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wed mothers to facilitate to consider their career plan and career orientation. The program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Super's developmental theory. The program was done twice a week totally 8 times. The subject of the program is unwed mothers from 16 to 25 years old.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hel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es were carried out. In quantitative research, the Wilcoxon Signed Ranks Test was done with SPSS Window 10.0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In qualitative research, the content of discussion in the course of group process, investigation, and the materials which were made from the group members were analysed to the objects of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proven to develop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identity. Finally, the meanings of this consequences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미혼모(unwed mothers), 진로(career), 진로교육 프로그램(career education program)

I. 서론

청소년기 미혼모들은 임신하지 않은 또래의 여자 청소년들보다 진로에 대해서 비관적이고(East, 1996)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 동일 연령의 임신 하지 않은 여자청소년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ast, 1996; Webb, 1994).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 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김만지, 2000)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들 가운데 50-70%가 출산 후 계획이나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현실적으로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는 것은 주로 청소년기에 있는 미혼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구직을 할 가능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인 결핍과 미혼모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으로 인해 고용되지 못하는 결과는 미래에 미혼모들이 자립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적이고 직업적인 교육과 고용 역량 강화 같은 직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요구된다(Lankard, 1994). 실제로 미혼모의 첫 출산 연령은 직업적인 안정과 노동 시간 그리고 임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ord, Moore, Morrison, Brown, & Myers, et al., 1992). 이에 대해 Kissman(1990)은 나이 어린 미혼모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함께 그들이 유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Kissman, 1990). Patton과 Creed(2001)도 진로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업의 세계와 관련해서 자신의 특별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Lapan & Kosciulek, 2001).

최근 미국에서는 기존에 요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해왔던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의 대체로서 TANF¹⁾(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가 실시됨에 따라 십대 임신 예방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구직서비스, 직업 준비 서비스, 그리고 각종 훈련 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http://www.cpoc.org/four_purposes_of_tanf.htm). 이렇게 TANF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움직임은 미혼모가 복지의존자로 남아 있지 않도록 일을 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 우선(workfirst) 철학은 기존의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었던 AFDC의 80%가 미혼모에게 소요되었던 엄청난 비용을 생각해본다면 미혼모들이 더 이상 빈곤층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있는 400명의 캐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진로 결정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ulein, 1999).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Benson(2000)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 미혼모들로 하여금 빈곤하게 생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혼모 대상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른 출산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구할 때에는 항상 영향을 받게됨을 고려해 볼 때 미혼모의 직업과 수입을 고려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입이 요구된다(Nord, et al., 1992).

한편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한 미혼모보호시설의 경우, 1998년 입소자 중 십대 비율이 55%로 점차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지, 2001에서 재인용).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접근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폭이 미미한 것에 비해서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http://www.aeranwon.org>; <http://www.moja.or.kr>).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진로 관련 서비스는 컴퓨터 교육, 양재 훈련으로 이러한 직업훈련이 현실적인 취업으로

1) 미국은 1996년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가 제정되기 전에 저소득가정을 위한 중요한 정부의 현금 지원책으로 AFDC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이전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의존성을 조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십대 청소년 임신의 양적인 양산을 낳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공적부조 대상자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TANF가 실시되었다(Handler & White, 1999).

연결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미혼모들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미혼모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와 진로

미혼모들은 동일 연령의 임신하지 않은 여자청소년들과 비교해보면 노동시장 참여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미혼모들은 어릴 때에는 고용될 가능성이 낮지만 오히려 20대에는 출산과 아동양육을 늦춘 동일 연령의 여성들보다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ord, et al., 1992). 미혼모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나이 어린 엄마들은 나이 든 엄마들보다 노동 경험이 축적될 확률이 낮고 자신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낮은 수입과 낮은 직업 신용력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른 양육이 직업 성취(occupational attainmen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미혼모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낮은 기대(aspiration)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고학력과 고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업 분야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ord, et al., 1992).

미혼모의 빈곤과 복지 상황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AFDC의 거의 2/3가 첫 아이를 낳은 십대인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와 빈곤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하였다(Nord, et al., 1992). 결국 청소년 임신으로 인해 청소년 부모들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위치에서 생활하게 되고 결혼을 해도 불안정하며 이러한 가운데 복지서비스에

높은 의존을 하게 된다(Nord, et al., 1992). 하지만 가족이나 동료 그리고 미혼부의 지지는 미혼모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ssman, 1990).

이렇게 교육의 사회화가 단절된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개입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Rotheram-Boruw 등이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명의 소규모 토의집단을 구성하여 사례연구와 개인상담을 실시한 연구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비롯한 직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PASHA, 1998). 이러한 개입 방식은 학교를 중퇴한 미혼모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진로 추구를 격려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미혼모들이 또 다시 임신하게 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재임신 예방의 개입(Stevens-Simon, Kelly, & Kulick, 2001)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한편 The Adolescent Family Life Demonstration Projects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십대 부모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Camden, New Jersey, Savannah, Georgia, Houston, Texas, Tucson, Arizona, San Francisco, California, Salem, 그리고 Oregon에서 실시되었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서 교육 및 고용상담, 고용 전 직업 기술 훈련, 그 외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Lankard, 1994). 이처럼 미혼모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이나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주변인으로 남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 진로발달이론

발달이론은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는 입장으로 진로란 개인의 일생에서 발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연속적 사건임을 말한다(김병석 외, 1997). 발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Super, Ginzberg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개인의 직업선택 과정이 아동기부터 은퇴기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으로써 개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진로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으로서 Super는 14세부터 25세를 직업에 대한 탐색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고 한다(Super, 1990). Ginzberg(1972)는 청소년기를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뚜렷해지며 진로에 대한 준비태세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하였으며(Ginzberg, 1972; 강재태·배중훈, 2000에서 재인용), 또 Havighust(1972)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진로에 대한 결정과 준비를 들었다(Havighust, 1972). 본 글에서는 진로발달이론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 가운데 특히 진로선택이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한 Super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Super는 직업발달과 측정 그리고 직업적응에 관한 관련이론과 연구들을 폭넓게 전개하면서 포괄적인 직업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Super는 개인은 능력이나 흥미, 성격에 있어서 각기 차이점을 갖고 있어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각 개인은 각기 적합한 직업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직업 선호나 능력, 자아개념 등은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직업의 선택과 적응은

일생을 통해 변화하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이 과정은 일련의 생애단계로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나눌 수 있다(김계현 외, 2000에서 재인용). <표 1>은 Super의 이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1951년 진로유형연구에서 소개되었는데 상호 순환적인 단계를 갖는 진로발달단계와 그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Super는 직업선택 과정이 인간의 발달과정 및 발달단계에 부합되는 과정으로서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이며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업발달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은 형성되어 유아기에서부터 그 후로 변화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때까지 발달되지만 청년후기 이후에는 큰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특히 진로발달을 위한 개입에서는 개인상담, 가족상담이나 다른 접근이 포함되며 진로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성장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지지를 보내고 명료화, 통찰, 자기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Super는 진로상담 개입에서 비지시적 방법에 의해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을 표출하도록 하였으며 심리검사와 직업정보 분석 등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해 탐색을 하고 이러한 결과로서 가능한 대안과 행동을 고찰하도록 하였다(김병석 외, 1997).

<표 1> 생애기간을 통한 발달과업의 순환

인생단계	청소년기 14-25세	성인초기단계 25-45세	중년단계 45-65세	장년단계 65세 이상
쇠퇴기	적은 취미시간 투자	체육참여의 감소	핵심적 활동에 초점	노동시간의 감소
유지기	직업 선택의 확증 입장	직위의 안정	경쟁의 반대적	즐기는 것의 유지
확립기	선택 영역에서의 시작	안정된 지위로의 확립	새로운 기술의 개발	원하던 일의 수행
탐색기	많은 기회에 관한 학습	원하는 일을 위한 기회 탐색	일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파악	정년후의 일 선택
성장기	현실적인 자아 개념의 개발	연관된 사람을 통한 학습	개인의 한계를 인정	직업과 관련 없는 역할의 개발

자료: 김계현 외, (2000)에서 재인용.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미혼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전임신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미혼모들 스스로가 세상에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O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미혼모 32명 가운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7명의 미혼모이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밝힌 총 10명이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퇴소 1명, 조산 2명²⁾으로 프로그램 종결시 실제 효과성 분석은 전체회기의 100%를 참가한 미혼모 7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2>와 같다.

2. 변수의 측정과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로성숙도 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 그리고 진로정체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의 집단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응집

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진로성숙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1982)이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검사를 통해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태도검사와 능력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태도검사만 사용하였다.³⁾ 태도검사의 하위영역은 다시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으로 나뉘어지며 하위영역에 따른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60-.76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75로 나타났다.

- 2) 퇴소한 집단성원 1명과 조산한 집단성원 2명은 모두 집단 1회기만 참여하고 집단을 탈락하였다.
- 3) 진로성숙도 검사는 태도검사와 능력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능력검사는 직업성숙분야의 하위영역이 직업선택능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으로 구분된다. 본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능력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서 상기한 부분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과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의 태도부분만을 측정하였다.

<표 2> 프로그램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대상	연령	학력	종교	직업	부모관계	입소 전 동거 가족	현재 임신 개월 수
A	16	중퇴	무교	무직	친부모	미혼부 가족	10개월
B	17	고퇴	기독교	학생	친부	친부	10개월
C	20	고퇴	무교	도우미 아르바이트	친부+계모	언니, 형부	10개월
D	21	중졸	무교	무직	친부모	미혼부	7개월
E	16	중퇴	기독교	학생	친부모	미혼부	8개월
F	25	고졸	기독교	회사원	친부모	미혼부 가족	8개월
G	24	대퇴	불교	무직	친부모	없음	10개월

2) 진로결정수준검사

본 연구에서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1976, 1980)가 개발한 것으로 이 척도는 각 항목의 상황에서 자신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미결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Chartrand & Camp, 1991). Osipow(1980) 등이 보고한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82를 얻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3으로 나타났다.

3) 진로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의 정체감 척도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4점 척도를 사용한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Holland 등(1993)은 본 도구를 사용한 50여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 도구가 적절한 수준의 구인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김봉환, 1997). 총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 즉 높은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제작자들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7로,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9로,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97로 나타났다.

4) 집단응집력 검사

집단응집력은 Howarth와 Greenberg(1986, 1989)가 만든 36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 중에서 유대 차원의 문항 12문항 중 11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이형득(1979)의 집단활동 체크목록 12문항 중 7문항을 선택하여 강순화(1994)가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개발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선표집한 남녀 대학생 각각 119명을 총 23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 결과, 이 척도는 크게 집단성원간의 수용성, 집단 분위기, 집단관여 등 3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1차 예비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한 17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4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집단성원의 수가 적고 모집단이 정규 집단이라는 가정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Wilcoxon Signed Ranks Test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집단성원의 변화를 살펴보고 여러 회기에서 참여하는 패턴을 관찰기록하고 프로그램 과정 중에 집단성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Worksheet에 작성함으로써 문서화한 자료를 질적 분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집단응집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도를 살펴보고 집단성원의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측정을 위해서 목표달성 척도(goal attainment scaling)⁴⁾를 활용하였다.

IV.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특징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미혼모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Super의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을 토대로 하였다. Super가 제안한 진로발달이론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틀을 구성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구체

4) Goal Attainment Scaling은 Kiresuk(1994)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개입기간동안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된 목표를 양화하여 측정하는 도구이다. Goal Attainment Scaling을 위해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목표는 개입기간동안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목표로 정한 항목은 클라이언트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각 목표의 척도는 -2에서 +2까지이며, 질적 접근에서 클라이언트가 질문에 대해 다르게 느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Royse, & Thyer, 1996).

적인 내용은 Byers(1994)와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1995)가 제시한 진로 교육 훈련 내용 가운데에서 진로발달이론과 연결되고 미혼모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에게 활용 가능한 적합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Byers(1994)는 청소년 임신 등의 고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산적인 직업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모색해보게 하고,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1995)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 직업에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직업 자원 파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진로 기회 숙고를 통해서 진로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회기의 구체적인 결과목표는 <표 3>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목표 및 내용에 제시되어 있다.

3. 프로그램의 실시과정 및 내용

프로그램은 2001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20분씩 주2회 총8회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본 연구자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본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교육 및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였다. 보조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프로그램 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할을 하였다.

모든 회기는 동일한 형태를 띠는데, 먼저 각 회기마다 목적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회기부

터는 전반부에서 지난 회기 때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프로그램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집단활동이 끝나는 후반부에서는 집단성원들간의 느낌이나 경험을 나누고 집단과정 질문과 평가가 포함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1회기는 준비 단계로서 집단성원간의 관계형성과 집단성원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 3회기는 자기인식단계로서 2회기는 직업흥미검사, 진로적성검사를 통해서 집단성원들이 자기탐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3회기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도록 했으며 특히 미혼모가 되는 것이 개인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4-6회기는 교육 및 직업탐색 단계로서 4회기에서는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집단성원의 개인적인 관심을 분석하고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된 직업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였다. 5회기에서는 2회기에서 실시한 직업흥미검사와 진로적성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흥미와 능력을 알아보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6회기에서는 이전의 회기를 바탕으로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예비직업을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자신의 구체적인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7, 8회기는 진로준비 및 계획 단계로서 7회기는 자신이 예비 선택한 직업에 대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하고 그 외 몇몇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8회기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획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목표 및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목표 및 내용

단계	회기	결과목표	내용
준비 단계	1회	1.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2.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공유한다. 3. 집단의 규칙을 안다.	1.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 소개 2. 집단의 규칙 설명 3. 진로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강의 및 교육 4. 사전검사 실시
자기 인식 단계	2회	1. 진로탐색에 있어서 흥미와 적성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직업흥미검사, 진로적성검사를 통해서 자기탐색의 기회를 가진다.	1. 흥미와 적성의 개념 설명 2. 직업흥미검사, 진로적성검사 실시
	3회	1.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각자의 목표를 설정한다.	1. 자신의 과거-현재-미래 2. 나의 인생 계획에 대한 토의 3. 프로그램에서의 나의 목표 설정
직업 탐색 단계	4회	1. 개인적인 관심을 분석한다. 2.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된 직업을 안다. 3.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이해한다.	1. 나의 관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특성 이해 2. 직업 선호도 체크리스트 작성 3. 기본 가치와 직업에 대한 강의
	5회	1. 자신의 객관적인 직업 흥미를 안다. 2. 자신의 객관적인 진로 적성을 안다. 3.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 자신의 직업 흥미 검사 결과 해석 2. 자신의 진로 적성 검사 결과 해석
	6회	1. 예비 직업 선택을 해 본다. 2. 자신의 구체적인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이유를 이해한다.	1. 자료-사람-사물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 파악 활동 2.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특성 이해하기
진로 준비 및 계획 단계	7회	1. 직업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2. 개인의 삶의 조건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해한다. 3. 직업 계획을 완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 정보 수집 2. 이전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흥미 있는 직업 선택하기 3.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장·단기 활동 계획하기
	8회	1. 성장의 과정으로서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직업적 발달을 이해한다. 2.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한다.	1. 나의 장점 파악하기 2. 프로그램 총 평가 3. 사후검사 실시

V. 연구 결과

속도의 태도 부문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1. 양적 분석 결과

1)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태도검사,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진로정책감의 3가지 영역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 4〉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후로 진로성

〈표 4〉 진로성숙도의 태도 부문 사전-사후 검사 비교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p-value
진로성숙도의 태도			
- 계획성	20.86±0.77*	19.14±0.55*	< 0.05
- 독립성	22.14±0.88*	19.71±0.71*	< 0.05
- 결정성	15.14±0.55*	13.43±0.90*	< 0.05

* Mean±SEM

Tested by Wilcoxon Singed Ranks (2 related samples)

〈표 4〉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후에 나타난 진로성숙도의 태도검사에서 나타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계획성이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20.86을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9.14를 기록하여 1.72의 감소를 보였고, 독립성이 사전검사에서는 22.14를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19.71을 기록하여 2.43의 감소를 보였고, 결정성이 사전검사에서는 15.14를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13.43을 기록하여 1.71의 감소를 보였는데 세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미혼모들의 진로성숙의 태도부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의 태도부문의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한 변정순(1990), 김수자(1991), 김홍혜(1998), 박선애(1999), 유현숙(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음 〈표 5〉에서는 미혼모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42.86을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5.57을 기록하여 진로결정 수준이 7.29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45.00을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8.86을 기록하여 6.14의 감소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미혼모들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한 조지영(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2) 프로그램 참여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모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집단응집력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즉, 집단성원간의 수용성, 집단 분위기, 그리고 집단 관여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도를 살펴보았으며 〈표 6〉에 각 부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표 6〉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후에 나타난 집단응집력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집단성원간의 수용성이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7.14를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1.00을 기록하여 3.86의 증가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원간의 수용성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집단원 사이에서 수용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집단분위기는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2.57을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8.57을 기록하여 6.00의 감소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경험 속에서 집단원들과 불편하거나 믿지 못하는 느낌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집단 관여는 사전검사에서는 평균 14.29를 그리고 사후검사에서는 16.43을 기록하여 2.14의 증가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이전보다 실시이후에 집단원에 대한 관심과 집단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해져 집단응집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5〉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p-value
진로결정수준	42.86±3.35*	35.57±3.74*	< 0.05
진로정체감	45.00±4.62*	38.86±4.96*	< 0.05

* Mean±SEM
Tested by Wilcoxon Singed Ranks (2 related samples)

〈표 6〉 집단응집력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p-value
집단응집력			
- 집단성원간의 수용성	17.14±0.94*	21.00±1.84*	< 0.05
- 집단 분위기	12.57±1.21*	8.57±1.27*	< 0.05
- 집단 관여	14.29±0.92*	16.43±0.61*	< 0.05

* Mean±SEM
Tested by Wilcoxon Singed Ranks (2 related samples)

2. 질적 분석 결과

1) 개별 집단성원의 구체적인 변화

개별 집단성원별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생긴 변화 내용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해서 미혼모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변화를 관찰 기록한 내용과 그 동안 회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총괄평가에서 논의된 피드백을 중심으로 집단성원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별 집단성원의 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 사례

적성검사와 흥미검사를 검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 좋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2) B 사례

아직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유익했던 것은 나에게 어떤 직업이 맞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3) C 사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또 많은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의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임신으로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내 미래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4) D 사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5) E 사례

검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알게 되었다.

(6) F 사례

나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7) G 사례

'이런 직업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의 적성과 흥미를 알 수 있었고 직업선택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 개별 집단성원의 목표 달성 척도 분석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외에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만들어 마지막 회기에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집단성원들이 각각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기대한 만큼 달성하지 못하였으면 그 정도에 따라 각각 -2, -1로, 기대한 만큼 결과

<표 7>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별 집단성원의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

사례	개별 집단성원의 목표	목표평가
A	나의 진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2
B	복학을 위한 마음을 굳힌다.	+1
C	출산 후에도 계속할 도우미 일에서 필요한 나레이션 연습을 꾸준히 한다.	+1
D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2
E	중학교 복학을 위한 마음을 굳힌다.	+2
F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본다.	+2
G	홈패션을 포함한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를 달성하였으면 0, 기대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면 그 정도에 따라 각각 +1, +2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집단성원들 스스로가 기대한 이상의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Super의 발달이론을 근거로 Byers(1994)와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1995)가 제시한 진로교육훈련 내용을 미혼모에게 활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양적 분석의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프로그램 대상자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진로정체감이 향상되는데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집단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토의내용 및 관찰 그리고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프로그램 대상자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각자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임상 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혼모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발달이론과 진로교육 훈련의 유용성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천 현장을 발전시키는 실천이론의 개발 및 활용가능성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실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사회적 서비스 접근이 미흡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불명확한 미래의 진로 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의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진로교육은 드문 실정이다. 현재 미혼모 보호 시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미혼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개입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모들의 진로교육 영역에서 개입의 실천적인 정교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직업세계를 탐색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로 개입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능력, 가치관, 역할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여러 측면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자기탐색(self-exploration)의 경험(Sharf, 1992)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참여로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진로성숙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미혼모들의 반복되는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혼모들의 재임신율이 25%인 것을 고려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임신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감시키고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Rosenthal, Lewis, & Cohen, 1996; Jacobs & Wolf, 1995; Miller, et al., 1993). Kissman(199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모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미혼모들이 자신의 진로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재임신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7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모든 미혼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혼모의 저연령화,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미혼모의 진로 문제는 심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은 수이긴 하지만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순화(1994). 집단상담에서의 언어반응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및 효과에 관한 연구-상담자 교육에서 마라톤 형태의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강재태, 배종훈(2000). 진로지도 워크북. 서울: 교육과학사.
- 김계현 외(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만지(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병석 외(1997). 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수자(1991).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성숙 내외통제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혜(1998).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선애(1999). 집단상담이 공업계고교생의 진로유형 결정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정순(1990).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회 여성복지세미나 자료.
- 유현숙(2001). 고등학생용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조지영(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 및 과정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82). 진로 교육 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진로교육학회 엮음(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1995). *Project Taking Charge 2 Curriculum*.
- Chartrand, J. M. & Camp, C. C. (1991).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career development constructs: A 20-year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1-39.
-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TB/McGraw-Hill.
- Stevens-Simon, C., Kelly, L., & Kulick, R. (2001). A village would be nice but... It takes a long-acting contraceptive to prevent repea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1(1), 60-65.
- Tinsley, H. E. A., Bowman, S. L., & York, D. C. (1989). Career Decision Scale, My Vocational Situation, Vocational Rating Scale: Do they measure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15-120.
- Webb, W. (1994). Teen Sexuality: Empowering Teens to Decide. *Policy Studies Reviews*, 13:1/2, Spring/Summer, 127-139.
- Benson, D. S. (2000). Providing health care to human beings trapped in the poverty culture. *Physician Executive*, 26(2), March-April, 28-32.
- Byers, G. H. (1994). *Collaborative Discipline for At-Risk Students*.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 East, P. L. (1996). The younger sisters of childbearing adolescents: their attitudes, expecta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2), 267-282.
- Handler, J. F. & White, L. (1999). *Hard Labor: Women and Work in the Post-Welfare Era*. Sage Publication.
- Havighurst, R. L.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David Makay.

- Jacobs, C. D. & Wolf, E. M. (1995). School Sexuality Education and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Journal of School Health*, 65(3), March, 91-95.
- Julein, H. E. (1999). Barriers to adolescents' information seeking for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 Jan, 38-48.
- Kissman, K. (1990). Social support and gender role attitude among teenage mothers. *Adolescence*, Vol. 25, Issue 99, Fall, 709-716.
- Lapan, R. T. & Kosciulek, J. F. (2001). Toward a Community Career System Program Evaluation Framewor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 Winter, 3-15.
- Miller, B. C., Norton, M. C., Jenson, G. O., Lee, T. R., Christopherson, C., & King, P. K. (1993). Pregnancy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2, 392-400.
- Nord, C. W., Moore, K. A., Morrison, D. R., Brown, B., & Myers, D. E. (1992). Consequences of Teen-Age Parenting. *Journal of School Health*, 62(7), 310-318.
- PASHA (1998). Program Archive on Sexuality Health & Adolescence Catalog, Sociometrics Corporation.
- Patton, W. & Creed, P. A. (2001). The nexus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in schools: In competition or each defining a place for the other?.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9, 34-39.
- Rosenthal, S. L., Lewis, L. M., & Cohen, S. S. (1996). Issues related to the sexual decision-making of inner-city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31(123), Fall, 731-739.
- Royse, D. & Thyer, B. A. (1996). *Program Evaluation*. Nelson-Hall Publishers, Chicago.
- Sharf, R. S. (1992).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http://icdl.uncg.edu>. Lankard, B. A. (1994). Career Education for Teen Parents.
- <http://www.aeranwon.org>
- http://www.cpoc.org/four_purposes_of_tanf.htm
- <http://www.moja.or.kr>